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장은정	영문	EUNJEONG JANG
학과(전공)	기계공학과		학번	
파견 학기	2016학년도 2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인도네시아		파견 대학	Telkom university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태어나서부터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부모님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도 해외여행을 가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밖을 나와 보고 싶은 갈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교환학생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각났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님 곁을 떠나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시대인 만큼 영어는 능통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시작할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와 관련한 모든 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간다면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비자 발급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이것저것 있는 관계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절차의 경우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자 발급 시 서류 증명 단계가 나오는데 그때에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준 서류와 학교에서 준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꼭!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신청만 잘 마무리 된다면 비자 발급 비를 입금한 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항공권을 알아보다 특가가 풀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국 며칠 전에 사는 항공권은 할인 받기가 힘듭니다.
항공권을 알아보실 때 스카이스캐너나 플레이 윈즈를 이용 하세요.
- 수강신청은 파견대학 도착 후 그 학교 담당자와 상의 한 후에 결정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대략적인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담당자 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무료로 지원되는 곳을 가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텔콤 대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4배 이상 크기가 큼니다. 과별로 건물이 있고 학생 식당이 3군데 있습니다. 기숙사는 외국인 학생이 사는 기숙사 한 채와 현지 학생 기숙사 여러 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대상 기숙사는 방 크기와 시설이 다른 것과 비교하여 꽤 괜찮습니다.

텔콤 대학교가 위치한 반둥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로 이동시 3시간 소요 됩니다. 또한 반둥 지역은 산위에 있어서 보통 생각하시는 적도처럼 한 여름의 날씨가 아니라 연중 시원한 날씨입니다. 가끔 밤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쌀쌀한 경우도 있어서 겉옷을 하나쯤은 챙겨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발전 중이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면 길에는 차도에 선이 따로 없고 인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밖에 만약 걸어 나가게 된다면 차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텔콤 대학교는 시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서 시내를 가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를 불러서 가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한국 교통상황으로 따지면 얼마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은 교통이 항상 혼잡하여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한시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교수님들께서 모두 좋은 분이셔서 외국인인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을 들을 때 보다 좀 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Mechanical Drawing 수업의 교수님 경우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저를 배려하셔서 제가 한국어로나마 발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한국어 사용을 흔쾌히 권장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다 보니 모든 교수님들께서 영어에 유창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수업 하신 교수님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럴 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방식은 우리 대학교의 수업 방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참여도였습니다. 저는 국제 학과 수업을 들어서 그 반의 학생수가 3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작아서 인지 학생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수업이 좀 더 활기차고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는 무료였습니다. 생활비는 학교 식당에서 먹으면 2000원을 주지 않고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밖에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4000원 이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좋은 점은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끔씩 밖에 나가서 조금 값이 나가는 음식을 사먹는다고 할지라도 20만원이면 정말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보면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마저 물

탱크가 고장 나면 며칠씩 씻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연중 습한 기후다 보니 정말 벌레 많습니다. 재미도 바퀴벌레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동지역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중에서도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그 영향으로 학교 밖에만 나가면 공해가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갈 때 마다 마스크를 쓰고 나갔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주로 드라이버를 불러서 시내에 나갔기 때문에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5 만원 이상을 교통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중 일정한 기후다 보니 가게에 창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처음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적응을 점차 해 나갔던 거 같습니다.

음식이 대부분 위생적이지 않다보니 장이 좋다고 자부하는 저 역시도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은 계속 장에 탈이 났습니다. 학교 밖에 길거리 음식은 튀긴 음식을 빼고는 대부분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식당역시 위생이 한국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괜찮으니 여기서 먹는 것이 아마 조금은 나을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음식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짜기도 정말 짭니다. 학생식당에도 여러 개의 점포가 있으니 그 중에서 본인의 취향과 맞는 가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2위에 나란히 인도네시아 음식이 뽑힐 만큼 많이 있으니 혹시 가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텔콤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국제 교류원 역할을 하는 곳을 흔히 IO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International office의 약자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사무실 분들과 버디분들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탁을 하시더라도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시고 모르는 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곳을 자주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한 프로그램은 학교 연중행사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고기로 요리 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경연을 하는 동안 정말 교환학생에 와 있는 것 같았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신이 났었습니다. 또한 아웃스포츠라고 해서 학교 밖을 나가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도전을 하는 한국으로 따지자면 야영 느낌의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것 역시 오랜만에 해서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를 만큼 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킹데이 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본인의 나라에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축제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많이 먹어 봤습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말 좋은 분들과 그분들이 해주신 노력덕분에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부대시설로는 강당, 조그만 헬스장, 수영장, 호수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모든 곳을 둘러보지 못해서 이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는 한화라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와 k pop 댄스를 배우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k pop이 널리 퍼져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동아리에서 공연을 할 때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우리나라의 동아리만큼 실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동남아시아라서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문화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다른 점은 시간 개념이 무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약속 시간에 딱 맞추는 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약속시간에서 1시간 정도 늦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한다면 이제 다른 준비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사람 엄청 좋아해서 그냥 서있기만 해도 옆에서 말 정말 많이 걸어 줍니다. 사진도 같이 찍자고 많이 요청합니다. 저의 경우는 부끄러워서 그 질문들에 대답만 하느라 대화를 이어 나가지 못해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분명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제 방에 도착한 첫날 제 방을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낙후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더듬더듬 거리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잘 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영어 실력은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보다야 많이 향상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이 무섭기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혼자 간 여행과 같이 간 여행들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또 다른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나가있는 동안 한국의 시국은 정말 힘들었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면 그런 한국이라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한국 사람을 사랑해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문화를 배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목표만 있었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기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나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는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들 역시 지금의 제가 앞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만들어준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만약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교환학생으로 허락해주신

국제 교류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학교 풍경>



그림 1 일반 학생 기숙사



그림 2 IO,도서관이 속해있는 건물



그림 3 수업 들었던 건물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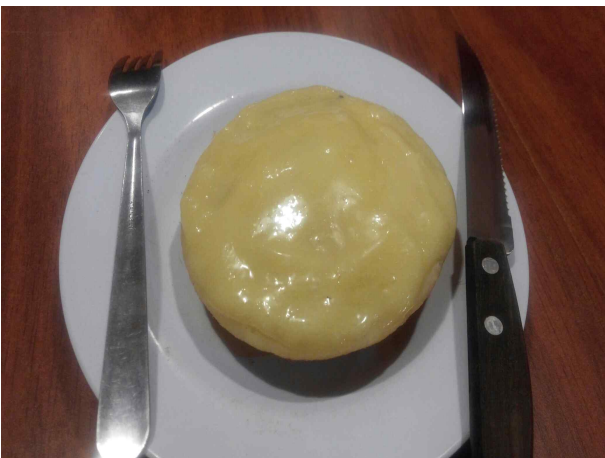


그림 4 인도네시아 전통 팬케이크



그림 5 나시고렝



그림 6 인도네시아 집밥

<일상 사진>



그림 7 기업 활동 모의 게임



그림 8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간 유적지



그림 9 IO에서 주최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젠가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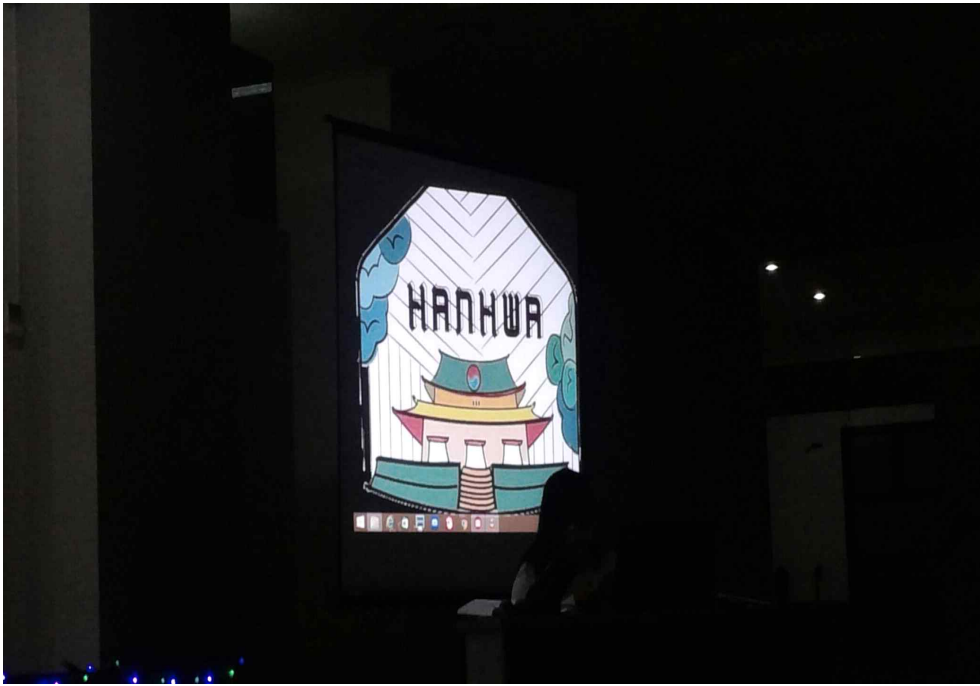


그림 10 한화공연 (한국 문화 동아리)



그림 11 조별 모임